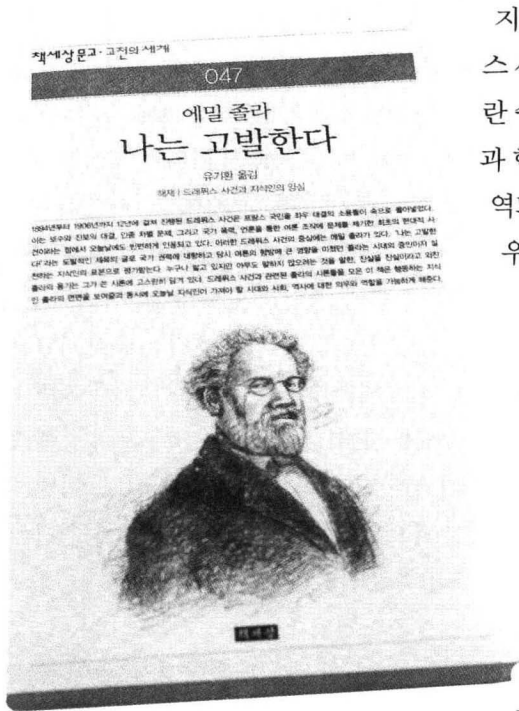


# 《나는 고발한다》

## 진실과 정의를 뜨겁게 꺼안으라

글\_허아람



지식인의 양심과 행동에 관한 좌표를 제시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드레퓀스 사건과 함께 에밀 졸라를 떠올립니다만, 정작 에밀 졸라의 글을 직접 읽기란 쉽지 않습니다. 책세상 문고가 번역한 책을 가지고 지난 몇 달 동안 학생들과 함께 ‘진실과 정의’에 관한 많은 주제들을 놓고 토론 했습니다. 이 책이 번역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안도와 감사의 마음이 들만큼 책은 우리가 진실과 정의에 대한 본능적 감각을 찾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진실이란 무엇인가?”, “정의는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 “왜 약자의 편에 서야 하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에 결코 단순히 몇 시간의 토론으로 결론과 해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에밀 졸라의 글은 적어도 한 역사적 사건 앞에서 진실과 정의의 편에서 서서 싸우는, 행동하는 지식인의 양심과 태도를 감지하고, 나아가 권력이 도처에 있듯 진실과 정의 역시 우리 삶 곳곳에서 발현되고 지켜져야 함을 가슴에 새기게 하는 뜨거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레퓀스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쉘레르 케스트에르 씨에게 보낸 편지에서 에밀 졸라는, “양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천직으로 삼고 있는 나의 열정을 일깨웠다. 정의를 위한 진실한 투쟁, 이것보다 더 영웅적인 투쟁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투쟁의 시작을 선언합니다. 작가로서 이미 명성을 가졌던 에밀 졸라와 기업가로서 존경받는 삶을 살았던 쉘레르 케스트에르 씨는 당대의 권력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 권력층에 속한 사람들에게 의해 다음과 같은 정의로운 공동체가 결속된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소위 조합의 실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서로 모르는 채 멀리 떨어져서 분투, 노력했고, 다양한 길을 통해 같은 목적지를 향해 떠났고, 묵묵히 걸었고, 땅을 파헤쳤고, 어느 이른 아침 모두 동일한 목적지에 이른 사람들, 방방곡곡 진실과 정의를 사랑하는 선량한 사람들의 모임 말이다. 그들은 모두 진실의 십자로에서, 정의의 광장에서 운명적으로 서로를 만나 손에 손을 잡았다.”

### ●이 글을 쓴 허아람은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지난 1990년도부터 독서토론 공동체인 아람샘을 운영하고 있다. 2004년 8월 청소년을 위한 인문학 서점 (인디고서원)을 열고 책읽는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일상을 꾸리면서 (my beautiful girl, indigo 인디고 서원, 내 청춘의 오아시스(공리)를 펴냈다.

그는 또한, 청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제 막 공공의 삶에 입문하는 이 청년들. 아무것도 그 올바른 이성을 흐리게 할 수 없는 이 새로운 영혼들에게서가 아니라면 도대체 어디서 사태에 대한 분명한 직관, 진실과 정의에 대한 본능적 감각을 찾을 수 있겠는가” 라고 외칩니다. 우리 역시 뜨겁게 청소년, 청년들

에게 이 말을 외칩니다.

공화국 대통령에게, 프랑스에게, 드레퓌스 부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가 사랑하고 지키고자 했던 것은 조국도, 민족도 아닌, 연민과 신념을 바탕으로 한, 약자를 향한 따뜻한 마음에서 비롯된 정의와 진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 고독한 사람이 된다는 것, 어떤 정파에도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 오직 자신의 양심만을 따른다는 것은 얼마나 고귀한 일인지요! 오직 진실만을 사랑하면서, 진실이 대지를 뒤흔들고 하늘을 무너지게 할 때조차 진실을 요구하면서 자신의 길을 꿋꿋이 간다는 것은 얼마나 고귀한 일인지요!”

그러나, 자신의 양심만을 따르며 진실을 향해 자신의 길을 꿋꿋이 가는 것이 인간이 나아가야 할 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들의 삶은 그렇지 못합니다. 정의와 진실이라는 말이 마치 고전의 격언처럼 생경하기만 한 현실에서 우리가 에밀 졸라의 말들을 뜨겁게 껴안고 살아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 책을 읽은 아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순을 느끼지 못하고 체제에 안주해버린 우리들의 모습은 드레퓌스 사건의 진실을 몰랐던, 또는 알고자 하지 않았던 프랑스 국민들과 다를 것이 없다. 물론 치열한 경쟁만을 요구하는 현재의 교육제도는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든 지금의 어른들, 나아가 우리보다 먼저 산 역사 속의 사람들 모두가 만든 것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현실이 잘못되었음을 인식하고 나아가 그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아니라 우리다. 우리는 과연 진실에 눈뜨고 있는가. 자신의 안위와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내 삶과 나를 둘러싼 사회의 거짓과 모순에 그냥 눈감고 지나치지는 않는가. 아니면 거기에 물들어 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를 고발할 수 있어야 한다.” (고2 이윤영, 이인재) 이 책을 읽은 청소년들이 세상을 고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반성을 위해 자신을 고발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진실에 깨어있는 우리 청소년들의 자세가 대견합니다.

어제 만난 올해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무하마드 유누스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고귀하고 소중한 삶을 생각하면 사회와 국가의 정책을 바꿀 수는 없어도 한 사람의 인생에는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라며 그가 그라민 은행을 시작한 첫 마음을 들려주었습니다. “가난한 이들

도 돈을 빌릴 자격이 있어. 그들에게도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갈 권리가 있어. 빈곤과 빈민은 권력자들이 만든 제도 와 정책 탓이지, 그들의 탓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무하마드 유누스의 그 마음, 그 순수한 마음이 660만의 사람들을 빈곤에서 해방시켰습니다.

하워드 진이 스펀먼 대학에서 강연할 당시 인종차별 철폐 시위를 하던 제자 마리언 라이드 에텔먼이 체포되어 교도소로 끌려간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날 그 여학생의 사진이 신문에 실렸습니다. 그 학생은 쇠창살 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교도소에 갇혔다는 이유로 숙제를 미루지 않겠다고 경찰에 끌려갈 때 가져간 책이었습니다. 《시대의 양심 20인 세상의 진실을 말하다》 시대의창) 하워드 진은 또 말합니다. “최고의 가르침은 사회적 행위social action와 책에 담긴 지식을 접목시키는 데 있습니다.”

얼마 전 호주의 한 청년이 거리에서 “Free Hugs 공짜로 안아드립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거리의 사람들을 뜨겁게 안아주었습니다. 인터넷을 보니 한국의 청년 한 명도 이 행동을 했더군요. 동영상을 보니 모두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심장이 쿵닥거리는 걸 들을 수 있는 뜨거운 포옹처럼, 우리 삶의 곳곳에 아무도 보려고 하지 않는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진실을, 정의를 뜨겁게 껴안는 청년들이 뺨을 부비며 눈물을 흘리는 아름다운 장면을 그려봅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전진하고 있고, 아무것도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 못할 것” 이기 때문입니다. 